

전남교육청, 세월호 참사 6주기 추모

오늘부터 10일간 추모기간 운영 학생·교직원 자율 참여 유도

전남교육청이 민선3기 '모두가 소중한 혁신전남교육'의 역점과제인 민주시민교육 강화를 위해 세월호 참사 6주기 추모행사를 전개한다.

전남교육청은 9일부터 오는 18일까지 세월호 참사 6주기 추모기간으로 정해 도교육청과 교육청 단위의 자율적 추모 행사를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추모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한 국민의 정서를 고려해 현장 행사보다 온라인 추모 분위기를 확산하고 교직원들의 자율적 참여 속에 최대한 차분하고 엄숙하게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이번 추모 행사의

슬로건을 '기억하겠습니다. 생명 존중의 세상, 꽃으로 피어난 아이들'로 정하고 학생들의 민주시민 의식을 강화하는 데 이번 추모행사의 중점을 둘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본관 외벽에 대형 추모 현수막을 게시하고 1층 중앙 현관 로비에 세월호 추모 나무를 설치해 직원들이 추모 메시지를 쓴 노란 리본을 걸기로 했다. 4월 16일 참사 당일 9시 40분에는 추모 묵념을 실시한다.

또한, 온라인 개학으로 인한 현장 행사 진행의 어려움을 감안해 전남학생회, 단위 학교 학생회 중심의 사이버 추모 행사를 독려하기로 했다.



이병삼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은 "세월호 참사 6주기를 맞아 학교교육과정 속에서 안전과 인권, 인간존중에 대한 인식을 확산해 학

생들이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민주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허성은 기자

광주유아교육진흥원, 생생 배움 지원

집콕 놀이꾸러미 제공

광주유아교육진흥원이 개학 연기에 따른 긴급 돌봄 상황 극복을 위해 시교육청, 유치원 현장과 함께 온라인으로 살아있는 배움 지원에 나섰다.

개학 연기로 유아와 학부모 모두 힘든 상황 속에서 기관과 유치원 현장이 유아를 대상으로 살아 있는 배움과 성장이 있는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한마음으로 뭉쳤다.

유아교육진흥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놀이자료 '집콕 놀이꾸러미'를 교원·학부모에게 제공했다.

또 교원들은 자발적으로 '광주유아교육온라인나눔방' 밴드를 개설해 교육정보를 공유하고

있고, 현재 가입 교원 수는 300여 명에 이른다.

'광주유아교육온라인나눔방' 밴드를 운영하는 교사는 "이렇게 많은 교원이 자발적으로 밴드에 가입해 교육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격려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벅차 올랐다"고 말했다.

유아교육진흥원 체미숙 원장은 "함께 하는 작은 움직임이 위기를 극복하는 큰 힘으로 나가는 마중물이 될 것이다"며 "유아들이 행복하게 웃을 수 있도록 유아교육 구성원과 지역사회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인호 기자

영광교육청, '온라인 개학' 대비 화상 회의

영광교육청은 지난 7일 온라인 개학에 따른 대비를 위한 원격 화상 학교장 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원격 화상 회의는 단계적 온라인 개학에 따라 기존 일정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던 회의와는 달리, ZOOM을 활용하여 참석자들이 간단한 앱 설치를 통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정해진 시간에 접속하여 진행했다.

회의에서는 단계적 온라인 개학에 따른 각급학교 운영 방안, 특수교육대상자, 다문화가정 등 관심 사각지대의 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청과 학교의 지원방안에 대해 밀도 있는 협의를 하였다. 그 외 생활지도, 저작권 교육 안내 등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서로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회의에 참여한 영광초 교장 서동순은 "단계적 온라인 개학이 현실로 다가옴에 따라 학교에서는 철저한 준비를 통해 온라인 수업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오늘 사용한 ZOOM 등 가능한 콘텐츠를 적절하게 활용해서 더욱 효과적으로 원격수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학교 교직원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광=서희권 기자

보성교육청, 학교폭력예방 자료 보급

학부모 대상 자료 제공

보성교육청은 지난 7일,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개학에 발맞추어 학교폭력 예방대책으로 대상 맞춤형 자료를 제작해 보급한다. 최근 'n번방' 사건 등 각종 학교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학생들을 안전하게 지키겠다는 노력의 일환이다.

학교 현장과 가정의 상황을 고

려하여 대상 맞춤형으로 제작된 이번 자료는 2020년 변화된 학교폭력 사안 처리방식과 학교폭력 대처법을 알기 쉽게 제공한다. 학교폭력 사안처리에 있어 학교와 학부모, 교육청의 역할부터 학교장 자체 해결제와 학교폭력심의위원회 개최와 같은 법률 개정의 핵심까지 한눈에 알 수 있다.

보성=김덕순 기자

코로나19 예방 군부대 지원 추가 방역 실시

직접 손으로 정성껏 닦으며 학생 안전 실천



영암 교육청과 영암군 육군 8539-5부대는 온라인 개학에 대비

하여 지난 7일 관내 긴급돌봄교실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을 3월에 이어 추가 실시 하였다.

지난번 3회 실시한 돌봄교실 소독의 만족도가 높아서 군부대의 지원으로 다시 한번 돌봄교실 내부 곳곳에 소독제를 뿌려 직접 손을 이용하여 천으로 닦아내는 방식으로 실시되었다.

이상석 육군8539-5부대장은 "코로나19의 지역내 감염자와 확진자가 한명도 없는 가운데 흑시모를 감염 가능성 등을 고려해 우리 군인들의 철저한 방역작업과 예방활동에 공동 대응으로 우리는 학생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였다.

영암교육청은 "먼저 이상석 부대장 이하 군인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추가 개학 연기에 따른 학부모님들의 불안 해소와 긴급돌봄교실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며 감사의 뜻을 전하였다.

아울러, 군부대 방역은 지난달 24일부터 3회에 걸쳐 관내 돌봄교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학교 및 학부모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었다.

또한, 영암교육청은 관내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개학 전(4월 1일 ~ 4월 3일) 학교 특별 방역소독을 실시하였으며 관내학교 학생들에게 면마스크 1,100장을 배부할 계획이다.

영암=조대호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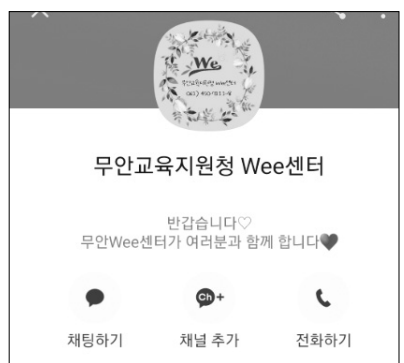
무안 Wee센터 온라인 상담 가동중

무안교육청은 코로나19로 인해 개학이 연기되는 동안 학생들의 생활지도와 정서적 안정을 위한 '위(Wee)기 탈출' 온라인 상담과 학생생활지도 온라인 학습 자료를 지원하고 있다. 단계적 온라인 개학에 따라 학생들의 심리적 안정과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무안교육청 Wee센터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는 카카오톡에서 무

안교육청 Wee센터 채널 추가 후 1:1 채팅하기를 통해 학생·학부모 온라인상담이 가능하다. Wee센터 홈페이지 '온라인 상담게시판'을 통해 사이버 상담과 '온라인 심리검사'를 활용한 비대면 심리검사도 지원한다.

또한 취약계층 및 위기학생 지원을 위해 희망하는 가정을 방문하여 상담 및 생필품을 전달하고, 생활지도도 위한 온라인 가정학습



자료를 학교에 안내하여 생활지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온라인 상담을 통해 만난 중1 학생은 "코로나 19로 불안과 중학생

이 때서 학업뿐만 아니라 친구와 어떻게 하면 잘 지낼 수 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걱정이 있었는데 상담을 통해 불안감이 해소되고 따뜻한 격려와 위로로 힘을 낼 수 있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정재철 교육장은 "개학이 연기되는 동안 학생들의 불안한 마음을 지속적으로 위로하고 돌보며, 건강한 생활지도도 도와 학생들 스스로 몸과 마음의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해달라"라고 당부하였다.

무안=이기성 기자

